

## 천정부지 뛰는 집값에 매물 실종 광주, 아파트 구하기 참 어렵네...



광주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부동산 현황세를 타고 입주 전부터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 서구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아파트.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 오는 12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김모(34)씨. 지난 27일 "원하던 24평형 아파트가 나왔으니 여서 오라"는 서구 금호동 한 공인중개사의 전화를 받고, 급히 차를 돌렸다. 5분 뒤 다시 전화가 왔다. "다른 업소에서 금방 계약금을 받아, 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였다. 매물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은 뒤 집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한 사례가 벌써 세 번째다.

#2.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34평형 아파트에서 6년을 거주한 박모(43)씨.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5개월 전부터 인근의 40평형 아파트를 알아봤지만 부동산에서 매물이 나왔다고 전화가 온 것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그 사이 원했던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400만원이나 더 올랐다.

금호지구와 풍암지구, 수완지구 등 광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 품귀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부쩍 집값이 상승하면서 매물이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 최근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자, '내 집값도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겹겹기 때문이다. 여기에 6대 광역시 중 집값이 가장 낮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조직적인 투자수요가 아파트값을 흔들면서 올해 들어 1개월 단위로 집값이 오르는 것도 한 이유다.

28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광주의 아파트 m

### ■ 광주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

구분	분양가격	전년동월대비
2014년 9월	780만2000	196만3000 ↑
2014년 5월	752만3000	117만 ↑
2014년 1월	732만6000	80만 ↑
2013년 11월	609만8000	69만 ↓
2013년 9월	583만8000	101만4000 ↓

(단위: 원 / 3.3㎡)  
(자료: 대한주택보증)

### 1년 새 분양가 33.6% 올라

#### 금호·풍암·수완지구 등

#### 이사철·결혼시즌 품귀현상

당 평균매매가격은 181만7000원으로, 1년 전 176만6000원과 비교하면 m당 5만 1000원이 올랐다. 전용면적 84㎡(약 34평형) 아파트를 따지면 1년간 평균매매 가격이 428만4000원 오른 셈이다. 2년 전인 2012년 9월엔 m당 174만4000원으로 2013년 9월까지 2만2000원 오르는 데 불과했다. 최근 1년간 광주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전년의 두 배에 육박한 것이다.

최근 대한주택보증 조사 결과, 9월 말 기준 광주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 역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6%나 올랐다. 올해 들어 광주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 중이다.

사정이 이렇자 광주지역 아파트 매물은 을 들어 급감했다. 이사를 원하는 사

람은 많지만, 매물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서구 풍암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만 가구가 넘는 풍암지구나 금호지구에서 한 달에 나오는 매매 물량이 평균 50여 건이 채 안 된다"며 "매물이 적고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는 순간, 실수요와 투자수요 모두 집을 보지도 않고 매매계약부터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조직적인 투자수요도 2년 전부터 광주 지역에서 아파트 사재기에 가세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뭉친 투자수요는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시세차익을 노려 마구잡이 매입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실거래가에 소형 아파트를 매입한 뒤 바로 전세를 내주고, 2년 뒤 집단으로 부동산정보지 광고를 통해 가격을 올려 파는 방법을 쓰고 있다. 상승한 가격이 정보지에 게재되면서 집 소유자들도 덩달아 가격을 올려 판매하게 되고, 집값은 더욱 뛰어 오를 수밖에 없다.

정병은 한국공인중개협회 광주시지부장은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102.5%가 넘었지만 원룸이나 도시형 주택 등이 망라된 통계로, 아직 집이 부족한 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주택 소유자들이 아예 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한전 직원들 내달 7일 '역사적 대이동'

### 1700명 단계적으로 입주

#### '빛가람 에너지밸리' 가시화

한국전력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추진하는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이 12월부터 가시화된다. 한전은 다음달 7일부터 역사적인 대이동을 통해 11월 말 이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빛가람시대'를 연다.

28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11월7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이주를 시작한다. 이주는 주말을 이용하게 되는데, 금요일 서울에서 집을 포장한 뒤 토요일 운송, 일요일 해체하는 형식이다. 집 분량만 5t 트럭 800여대에 이른다. 이사 첫 주에는 원전과 해외사업부가 집을 풀고, 14일에는 신성장 동력 및 전력계통 부서, 21일에는 기획·관리·영업부서, 28일에는 직속부서와 기획(3차), 관리(3차) 부서 등이 이삿짐을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 전력로의 한전 본사 사옥도 이미 새 식구를 마중할 준비를 끝마쳤다. 연면적 9만9307㎡, 지상 31층(154m) 규모의 새 사옥은 일부 내부 마감공사만 남았다. 이전 인원은 1700여명 규모다. 이전 계획이

나올 당시엔 1425명 선이었으나 지난 6월 조환익 사장이 나주통합ICT센터 설립에 따라 추가 300명이 이주한다고 밝히면서 1700여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한전과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기업이 한데 뭉친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에너지밸리(Energy Valley)'는 일본의 기업도시인 토요타시나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빛가람 도시를 중심으로 광주·전남권 관련 산업과 연계한 지역사회 공동발전 시나리오다. 한전은 이미 지난 7월 총 27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광주·전남권 빛가람 에너지밸리 구축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한전은 산학연 R&D 협력 확대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한전KPS, 한전KDN 등 동반 이진 전력그룹사와 지역 산학연 R&D에 연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기술선도 에너지기업 100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이전을 마친 뒤 12월1일부터 빛가람 도시에서 정상업무에 들어가며 12월 중 개청식 겸 이전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김기태 KIA 타이거즈 감독 선임 "형님 리더십으로 팀 색깔 바꾸겠다"

### 3년 총 10억원에 계약

광주이고 출신의 김기태(45) 전 감독이 KIA 타이거즈 8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관련기사 20면>

KIA가 28일 김기태 전 LG 감독과 3년, 총 10억원(계약금 2억5000만원, 연봉 2억 5000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소통'을 팀 재건의 핵심으로 본 KIA는 '형님 리더십'을 통해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젊은 선수들을 육성해온 김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택했다.

서림초-중앙중-광주이고-인하대를 거



친 김 감독은 1991년 쌍방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삼성과 SK에서 선수로 뛰었다. 김 감독은 2006년 SK에서 지도자로 변신해 일본 요미우리 코치, LG 수석코치·감독 등을 지내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김 감독은 "현재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올해 마무리 훈련과 내년 전지훈련을 통해 팀의 색깔을 바꿔 놓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팬들이 즐거워 하는 야구를 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김 감독은 당분간 광주에 머물며 선수단 현황을 파악하고 코칭스태프 인선을 마무리 한 뒤 29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세월호 실종자 시신 1구 발견

#### 102일만에 ... 9명 남아

102일 만에 세월호 선체에서 추가로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다.

28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실종자가족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께 침몰한 세월호 4층 중앙 여자 화장실에서 실종자가 발견됐다. 성별이나 옷차림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여성의 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구조당국은 보고 있다.

구조팀은 수심 40m 아래로 가리얏은 선체에서 시신을 인양하려 했으나 유속이 세져 중단했다.

정조 시간인 오후 10시 전후 또는 29일 오전 4시 전후에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 확인에는 12시간 가량이 추가로 소요된다.

세월호 실종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 7월 18일 오전 세월호 식당칸에서 여성 조리사가 발견된 이후 102일 만이다.

세월호 사망자는 295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9명이 됐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학교설립60주년 기념 대음악회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11월 6일 저녁 7시 은혜관 3층 대예배실  
광신대학교 062)605-1130

끌어올리세요  
당신의 아름다움  
헤라 모디파이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헤라 모디파이어-  
탄력의 중심에 작용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한 차원 올려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시선이 향합니다

HERA  
MODIFIER  
Cell-Bio Layer Balm  
ANTI-WRINKLE  
REVITALIZING  
FIRMNESS

\*유량변화침이나 이모러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90-023-5454(수신자요금부담) www.hera.co.kr